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

아이돌봄담당관	박희원	02-2133-4801
키움센터1팀장	장윤모	02-2133-4814
양성평등담당관	이성은	02-2133-5006
늘봄학교지원팀장	김지은	02-2133-5048

양성평등담당관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6매

서울시, 늘봄학교 조기 안착에 힘 심는다..전국 최초 '학교 밖 늘봄학교' 운영

- 5.2.부터 거점형 키움센터(구로)에서 오류남초·매봉초 초1 아동 대상 운영 시작
-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 돌봄부담 경감 위해 사·교육청 칸막이 없는 협력 결실
- 희망아동 대상 코딩·드림·클라이밍 등 요일별 프로그램..첫날은 반려견 교감 프로그램
- 구로 거점센터 시작으로 노원, 동작, 종로, 성북,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로 확대 운영
- 2학기 '늘봄학교' 전면시행 대비 전국 유일 전담팀 신설, 소통채널 상시 운영으로 신속 지원

- 오는 9월 '늘봄학교'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가 '늘봄학교'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.
-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학교 밖 돌봄 인프라인 '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'(이하 '구로 거점센터')를 활용한 '학교 밖 늘봄학교'를 5월 2일(목)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. 서울시가 보유한 돌봄자원과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다.
-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'늘봄학교'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사업이다. 올해는 초1 대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두 시간의 늘

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는다.

- 5월 현재 서울에 소재하는 150개교가 지정되었으며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565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‘학교 밖 늘봄학교’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서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간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. 저출생 위기에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‘늘봄학교’의 취지인 만큼, 칸막이 없는 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.

- 지난 2월과 3월에 열린 “중앙지방협력회의”와 “늘봄학교 범부처 회의”에서 양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고,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-시교육청-남부교육지원청-늘봄학교(오류남초·매봉초) 간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이번 결실을 맺었다.

〈희망아동 대상 코딩·드럼·클라이밍 등 요일별 프로그램·첫날은 반려견 교감 프로그램〉

□ 5월 2일(목)부터 구로 거점센터에서 시작하는 ‘학교 밖 늘봄학교’는 인근에 있는 오류남초등학교와 매봉초등학교 2개 학교의 1학년 아동들이 방과 후 구로 거점센터로 이동해서 요일별로 다양한 늘봄교실에 참여하게 된다.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까지 주5일 동안 진행한다.

□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아동,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코딩(과학), 클라이밍(체육), 드럼 연주(음악)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.

- ▲음악활동(드럼연주) ▲과학활동(코딩) ▲체육활동(클라이밍) ▲정서지

원(동물교감) ▲ 문화활동(요리교실) 등 저학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했다.

- 특히 첫 날인 2일(목)에는 구로 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인 「함께 하멍, 더 사랑스럽개」를 진행한다. 오류남초·매봉초 학생들이 직접 말티즈, 푸들 등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, 교감하기에 참여해 동물 감수성을 키운다.

❖ 「함께하멍, 더 사랑스럽개」 프로그램 개요

- (강사) 호서직업전문학교 동물매개치료개론 외래강사
- (내용)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의사소통 및 교감하기
- (효과) 안내견과 직접 교감으로 정서지원 및 동물 감수성 향상



<아동안전 최우선·차량 이동, 프로그램 운영시 안전요원 상시배치, 강사 범죄경력 조화>

- 서울시는 학부모가 가장 염려하는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 별한 신경을 썼다. 학교에서 거점센터까지 차량 이동과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 담당 선생님과 센터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며,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(성범죄 및 아동학대) 조회로 학부모들이 걱정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.

- 서울시는 이번 구로 거점센터 ‘학교 밖 늘봄학교’를 계기로 학교 현장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, 나머지 5개 거점형 키움센터(노원·동작·종로·성북·양천)로 ‘학교 밖 늘봄학교’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.

〈2학기 ‘늘봄학교’ 전면시행 대비 전국 유일 전담팀 신설 소통채널 상시 운영으로 신속 지원〉

- 한편, 서울시는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담팀(늘봄학교지원팀)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.

- 전담팀을 통해 시, 자치구, 시교육청,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늘봄학교가 필요로 하는 공간, 프로그램, 강사, 인력지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행정적 지원이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.
 - 특히 565개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일선 학교에서 늘봄교실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.
 - 현재까지 시 거점키움센터, 일반·융합형 키움센터 등 시가 보유한 초등 돌봄시설을 활용하여 약 50개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며, 관련 기관간 협업체계를 통해 가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.

-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“늘봄학교의 핵심은 지역사회 돌봄 주체인 지자체, 교육청, 학교 등 모두의 협업으로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것”이라며 “서울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‘학교 밖 늘봄학교’를 계기로 시 전역에 늘봄학교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고 말했다.

- ※ 붙임 : 1. 「함께하멍, 더 사랑스럽개」 프로그램 운영사진
2.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늘봄학교 연계 개요(포스터)



「함께하멍, 더 사랑스럽개」의 안내견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아동 모습

SEOUL M! SOUL



전국 최초



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

- 이용 아동**
- 운영 시기**
- 운영 장소**

오류남초, 매봉초 초1아동

2024. 5. 2.(목) ~ 겨울방학

• 주5일(매일 13~15시)

구로 거점형 키움센터(구로구 서해안로2329)



요일	운영 프로그램
월	문화예술 '드럼이 들린다'
화	창의과학 '디지털 새싹놀이터'
수	체육예술 '클라이밍'/'구로댄스'
목	사회정서 '동물교감'
금	사회정서 '가드닝'
	문화예술 '요리'

